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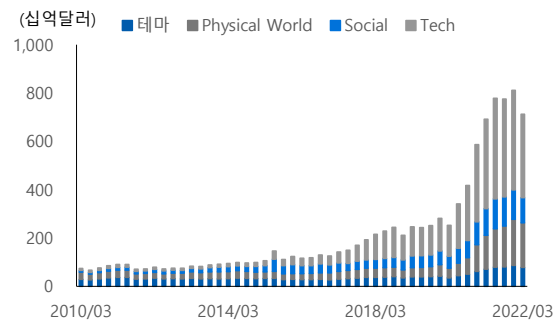


글로벌 테마펀드, 클린에너지가 1위로 부상

1. 글로벌 테마펀드, 성장세 주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펀드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유형은 테마펀드와 ESG펀드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장전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에만 투자하는 테마펀드 인기
- 2022년 주식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서면서, 테마펀드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글로벌 테마펀드는 1분기 들어 주식시장의 조정으로 순자산규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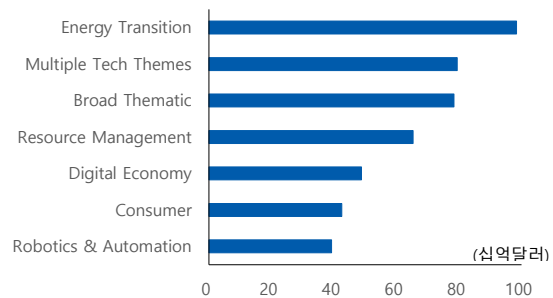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에너지 전환, Tech 부상

- 2015년 글로벌 테마펀드 중에서는 일반테마와 소비재가 주요 테마, 2019년은 일반테마와 자원경영의 순자산 규모가 컸음
-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 태양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면서 에너지 전환 테마펀드의 운용 규모가 가장 커짐
- 테마펀드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운용으로 향후에도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2022년 1분기 테마펀드는 에너지전환, Tech 등이 최대 유형으로 부상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글로벌 테마펀드, 성장세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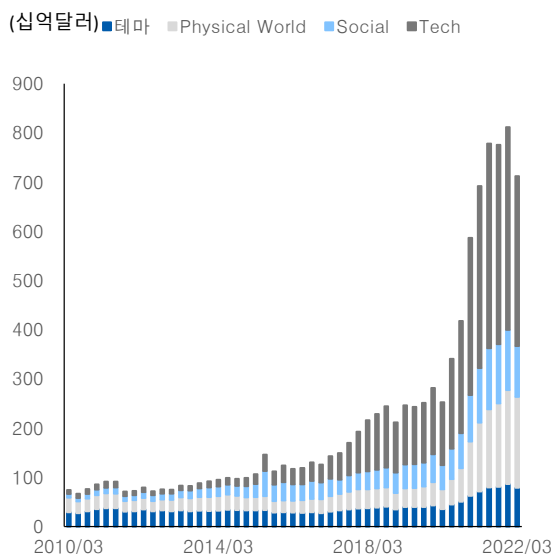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펀드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유형은 테마펀드와 ESG펀드이다. 미국 투자자들이 테마와 ESG에 관심을 가지면서, 해당 유형으로는 자금 유입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글로벌 펀드평가사 Morningstar는 테마펀드를 일반테마, 실물자산, 사회, Tech로 구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특정 테마에 투자하는 테마펀드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실물자산이나 Tech의 비중이 훨씬 높다.

MZ세대가 투자 문화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 투자하는 금융상품보다는 성장성이 기대되는 분야에만 투자하는 테마펀드가 인기를 얻었다. 주로 2차전지, Tech 등 장기 성장이 기대되는 테마가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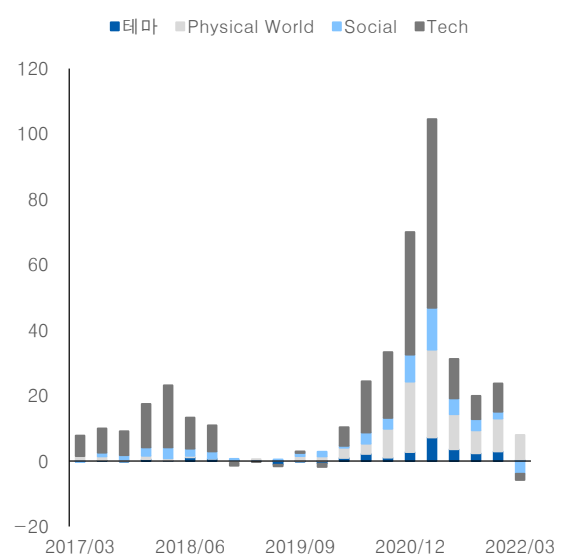
연초 이후 미국과 유럽의 주식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테마펀드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되었다. 2021년까지는 테마펀드로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Tech와 Social 유형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차트1] 1분기 들어 주식시장의 조정으로 글로벌 테마펀드의 순자산규모 감소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연말까지 물가 지표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제는 예상치와 부합하는 흐름.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에너지 전환, Tech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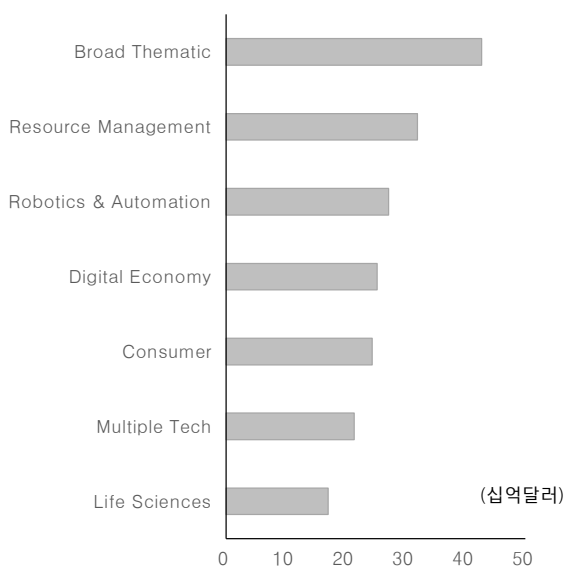
2015년 글로벌 테마펀드 중에서는 일반테마(290억달러), 소비재(143억달러), 자원 경영(135억달러), 보안(100억달러) 등의 규모가 컸다. 에너지 전환은 83억달러로 테마 유형 중에서 6위의 운용규모를 보였다.

2019년 글로벌테마펀드는 여전히 일반테마(427억달러)와 자원 경영(319억달러)이 주요 유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3위는 로봇과 자동화가 271억달러이며, 2015년 2위였던 소비재는 247억달러로 5위로 내려앉았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글로벌 테마펀드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산업 규모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에너지 전환 테마펀드 운용 규모는 984억달러로 2위인 Tech 테마(794억달러)를 크게 앞서고 있다.(2022년 1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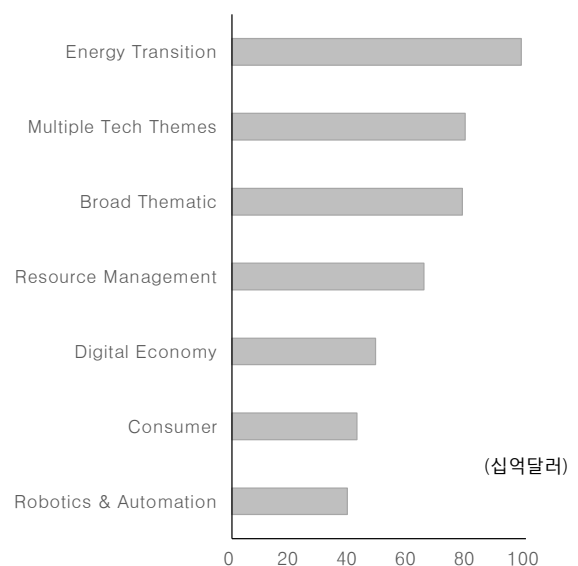
테마펀드는 산업 패러다임과 투자문화의 변화에 따라 매우 역동적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차전지, Tech 등 테마펀드가 펀드 시장을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트3] 2019년 테마펀드 중에서는 일반테마, 자원활용, 로봇&자동화 등이 큼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2022년 1분기 테마펀드는 에너지전환, Tech 등이 최대 유형으로 부상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